



# ENH 에덴뉴스

2017년 1월  
 통합 11-59호

**02 편집장 특집**  
 에덴뉴스 편집장의  
 특집 기사를 전합니다.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사랑의 편지**  
 환우가, 환우에게 남긴  
 사랑 가득한 편지 한통

**07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FOCUS 사진으로 보는 2016 에덴의 이모저모



김남혁 병원장 취임



연못 정원 조성



사랑의 장학금 전달



모의 CPR 훈련



개원 15주년 기념식



병원 후면도로 포장



길르앗 기도의 동산 조성



케냐 의료선교



셔틀차량 구입



고주파 온열치료기 3호기 도입



제 2회 QI경진대회



에덴족욕탕 개장



## NEWS 에덴의 소식



### 경춘지역 찬양감사예배

경춘지역 찬양감사예배가 에덴요양병원 대강당에서 지난 12월 10일 열렸다. 지역 내 10개 교회가 함께 모인 이번 행사에 에덴요양병원 환우합창단(단장 윤관영 지휘 김갑중)이 찬조 출연해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나 어느 날 꿈 속에서 헤매며'를 부르며 희망을 노래했다.

에덴요양병원은 환우들이 기타동호회를 통해 악기를 배우거나 특별찬양을 연습하는 등 아름다운 투병생활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간호부 특별순서

에덴요양병원 간호부에서는 지난 12월 14일 '감사'라는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매년 연말이면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순 행사를 준비해 오던 게 올해로 13회를 기록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그 동안의 추억을 떠올리는 영상으로 시작된 올해 특순은 '보이는 라디오'였다. 환우나 직원들이 보내온 사연이 읽혀지고 신청곡이 현장에서 불려지며 잠시 쉬어가는 광고까지 잘 짜여진 스토리로 참가자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다.



### 에덴 족욕탕 개장

에덴요양병원은 1층 수치료실에 족욕탕을 설치하고 환우를 위한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시작했다. 김남혁 병원장과 임원들이 겨울철 환우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이 증진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 직원 송년의 밤

12월 29일 6층 베지랜드에서 직원 송년회를 열었다. 남태희 웃음치료사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는 11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경쾌한 웃음과 웃놀이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 STORY 투병이야기

##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올 여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8월 중순 남편의 암선고로 하늘이 무너졌고 저와 남편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절절히 깨달았지요. 늘 지나쳐만 갔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어느 낯선 교회 구석진 예배당. 우리는 몸을 비틀거리며 서로를 붙들고 들어가 주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실컷 울고 집에 돌아와 이삼일 낙담하다 다행히 우리는 정신을 차렸고 지인의 소개로 이곳 에덴요양 병원에 8월의 끝자락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곳은 저희 둘 마음만큼이나 차갑고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이다가도 성큼성큼 다가오는 불안감으로 울다가 먹다가 지쳐 잠드는 그런 멍한 상태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벽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며 방법도 모르는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평정을 조금씩 찾아갔고 김진섭 전도사님과 전봉수 장로님의 위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하며 이곳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산에서 만난 권춘희 목사님은 저희 두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주시며 용기를 주셨고 류태희 목사님의 사랑의 손길도 저희가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영희 조무사님, 간절한 기도로 저희 방 환우들을 위해 일일이 기도해 주시는 이신애 간호사님, 이렇듯 너무도 감사한 분들과 주님의 총명한 은혜로 두어 달의 병원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손에는 분무기, 한 손에는 솔을 들고 공중화장실에서 정신 없이 변기를 닦고 있던 어느 여사님(?)의 모습 속에서 제 마음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저 모습일거야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화장실변기청소를 마다하지 않고 하시던 그 여사님,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는 저희 가족, 친지들 너무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뉴스타트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나의 하나뿐인 신랑, 유오역씨~"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모자란 저희를 위해 능력의 손, 치유의 손길로 남편을 치유하고 계신 아버지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 ON DAY 따뜻한 하루

### 토끼와 용왕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이모는 언제나, 딸이 없어서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이모에겐 아들만 두 명이 있다.

그중에서도 첫째 아들, 나에게서 사촌오빠인 박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고집이 섰다.

"요한아, 옆집 아처럼 엄마한테 사근사근하면 안 되겠나?"

이모는 종종 오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면 오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엄마는 가 엄마만큼 우리 얘기 잘 들어주나"며 반박했다.

오빠는 착하기는 한데 그저 자기 엄마에게 무뎠던 경감도 남자였다. 그런 오빠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스물, 고작 스무 살 때였다.

이모는 간암을 앓았다.

간암은 빠르게 전이되었고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이모는 주치의와 의논 후 간이식을 결정했다. 주치가 제안한 방법은 이모의 간을 완전히 떼어내고 기증자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증자의 건강이 중요했다.

기증자는 젊으면 젊을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좋다고 했다.

이모네 집에서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 오빠밖에 없었다. 오빠에게 간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모부의 모습은 꼭 별주부전의 거북이 같았다. 용왕님을 살리기 위해 토끼의 간을 가져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토끼가 아들이라니. 토끼와 거북이는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만났고, 거북이는 어렵게 토끼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그건 당연한 거다."

자신의 간 절반 이상을 떼어줘야 하는 대수술을 앞에 두고 당연하다니. 토끼에겐 망설임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당황한 거북이가 더듬거리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토끼는 대답했다.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건 당연한 거다."

이식을 결정하고 동의서를 쓰는 토끼에게, 의사 선생님은 전신마취를 할 거라는 이야기와 혹시 모를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다. 잔뜩 겁을 먹은 토끼는 집에 돌아와서 전신마취와 관련된 영상이며 자료를 다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토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은 기증자가 위험하면 수술을 중단할 거라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눈으로 직접 부작용 영상을 확인한 토끼의 입장은 달랐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밤의 온도를 이제는 느끼지 못 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토끼의 두려움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토끼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도 토끼는 아무도 모르게 최고의 간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싫어하던 운동을 하고, 튀기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토끼에게 요구한 젊고 싱싱한 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스물.

토끼는 한 번뿐인 청춘의 시간을 '용왕님께 바칠 싱싱한 간'을 만드는 데 들었다.

기나긴 수술이 끝나고 용왕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러나 토끼는 쉽게 눈을 뜨지 못했다. 원래 토끼는 간을 60%만 떼어 주기로 했었지만, 간이 예상보다 작아 70%나 떼어줘야 했고, 예정보다 많은 양을 떼어낸 게 토끼에게 무리를 주었다.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울 무렵 토끼가 눈을 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용왕님도 토끼도 모두 무사했다.

그런데 큰일을 겪고 나서도 오빠는 여전히 낯선다.

예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사근사근한 아들은 아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한 농담의 수위였다. 간을 내주면 사주기로 했던 최신형 노트북을 왜 안 사주냐니, 내 간 다시 가져갈지도 모르니 문 잘 걸어 놓고 자라느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뎠던 말 속에 애정이 흐른다. 이모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 엄마 간은 엄마 거 아니고 내 것이니 잘 돌보라고 하면서 꼭 한마디를 덧붙인다.

"엄마는 이제 내 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수술 후 오빠는 아직도 수영장과 목욕탕을 못 간다. 몸에 적나라하게 새겨진 상처 때문이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모는 말했다. 그때는 오빠 마음을 다 몰랐다고, 삶의 갈림길에서 보니 오빠 마음이 보인다 했다. 고작 스물의 아들내미가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나중에야 알았다고. 예전처럼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 해도 아들 몸엔 절대 칼을 대지 못할 거라고.

수술 전날, 오빠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던 이모는 지금이라도 두려우면 꼭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오빠는 이모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놓았다.

"엄마, 내 사실 지금 떨린다. 근데 내가 엄마한테 간 떼 주는 건 당연한 거다. 걱정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엄마 닮은 내 동생 은강이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간 떼 줄 사람 없는데, 나는 지금 그게 걱정이다."

## FOOD 계절을 대표하는 건강 식품



## 비트(Beet)

16세기에 독일에서 재배가 시작된 비트는 잎은 적근대와 비슷하지만 빨간색 뿌리는 우리나라 강화순무와 비슷하다. 뿌리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잎도 식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속잎은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곁잎은 고기 등과 함께 요리에 사용하면 요리의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

뿌리는 저장성이 좋아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제철은 가을부터 초겨울로 오렌지나 시트러스 계의 과일과 잘 어울려 샐러드 드레싱에도 많이 사용된다. 차이브, 민트, 테라곤 등의 허브와도 잘 어울리며, 시금치나 엔다이브, 양파, 셀롯 등의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많이 쓰인다.

비교적 재배가 쉽고 풀 전체를 식용할 수 있어 외국에서는 집에서 손쉽게 재배하는 인기작물이다.

## 비트의 효능

**항암작용** 비트의 붉은 색을 내는 베타시아닌 색소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아질산염과 같은 발암물질 농도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유방암의 재발방지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성계 질환 예방** 비트에는 여러 가지 무기질과 비타민, 염산이 풍부해 여성, 특히 산모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

**다이어트 효과** 비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활동에 도움을 준다.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간 건강에 효과** 비트의 베타시아닌이 간의 해독기능을 한다. 천연 아미노산의 일종인 이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간의 해독능력을 좋게 해 준다. 또 리보플라빈, 비타민A, C, 철분이 들어있고, 특히 철분의 효능이 강해 적혈구 생성뿐만 아니라 혈액조절에도 좋다. 지방간,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 준다.

**고혈압 예방 및 치료** 비트에 들어 있는 질산염과 같은 성분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준다.

**신체 면역 기능 향상** 비트의 활성산소 감소 효과는 파프리카, 흑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트로 만든  
에덴의 항암채식요리

## 비트&amp;파슬리 샐러드

## 레시피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에덴항암채식요리

## FIGHTING! 파이팅 릴레이 홍보기획실 유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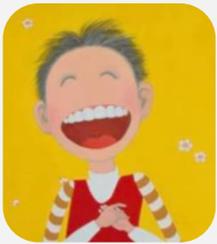
에덴 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추웠을까요? 간혹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저나 제 가족이 암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해 보지만, 그 큰 고통과 아픔은 감히 헤아려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짐을 씩씩하게 털어버리고 오늘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때때로 힘들어 지치거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 외로워지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웃을 수 있길, 어제보다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른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 화이팅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7월호에 '3층 수간호사 안흥련'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양반들을 칭찬합니다~

### 박윤실(104호)

윤정섭 님을 칭찬합니다. 올 여름 무덥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개개인을 위한 치료를 해 주신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언제나 재귀가 취미와 개성이 다른 특이한 환자들을 한 번도 소홀함 없이 진정어린 모습으로 신뢰할 만한 윤정섭 선생님같은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 병원에 오려 계시고 많이 계시었으면 합니다.

### 임경희(105호)

어떤 환자분을 칭찬합니다. 등산로에서 큰 봉치에 쓰레기를 잔뜩 수거해 내려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쓰레기들을 보고 치다치며 '누가 이런 짓을!' 하며 투덜거리기만 한 내가 순간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환자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산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 차영희(112호)

남태희, 최철규 님을 칭찬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에 언제나 수고하시는 두 선생님들. 이 분들 안 계시면 병원 생활이 재미 없고 치루했을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 김순녀(115호)

간호사 선생님들 칭찬합니다. 다정다감하시고 친절하시고 전부 칭찬하고 싶어요~

### 유옥래(211호)

김남혁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겸손하시면서 다정다감하신 모습과 늘 변함없는 미소로 환우들을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 한 편의 시

### 서시(序時)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